

P32. 주부의 채소류 세척방법 및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f Vegetable-Related Hazards and Vegetable-washing Behavior of Housewives.

최정숙*, 전해경, 김행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Jeong-Sook Choe^{*}, Hye-Kyung Chun, Hang-Ran Kim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DA

이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채소류 세척 실태와 채소류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채소류 안전소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이었으며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지역과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르는 2단 층화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산물 구입장소의 경우 채소, 과실류는 '대형할인점'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식량작물의 경우, 직거래(직접 재배 포함) 비율이 높았으며, 축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대형할인점 비율이 높아 생산-유통체계가 식품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쌈채소가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38.2%), '전혀 안전하지 않다'(4.6%) 등 '안전하지 않다'는 반응이 42.8%이었고 '매우 안전하다'(1.4%), '안전한 편이다'(16.4%) 등 '안전하다'(17.8%)는 반응은 17.8%로 나타나 불안감이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39.4%이었다. 대도시, 40~50대 연령층, 대재/대졸이상 학력층,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층, 대형할인점/백화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계층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태도가 더욱 강하였다. 위해요인 중 '잔류농약'(88.6%)이 채소류 안전성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으며, '중금속'(6.8%),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3.4%)은 미미한 편이었다. 쌈채소 안전성 인식에 상관없이 '잔류농약'이 채소류의 주된 위해요인이라는 견해가 많아 계층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채소'(87.0%), '과일'(75.2%)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약 사용이 빈번하고 표면에 직접적으로 농약이 살포되는 식품의 농약오염 관련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어패류'(중금속 69.4%, 유해미생물 80.6%), '육류/우유'(중금속 48.2%, 유해미생물 79.8%)에 대해서는 중금속 및 유해미생물 오염에 관한 불안감이 높았다. 채소류 세척 방법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90.6%), '흐르는 물에'(85.2%), 3~4회 정도(63.8%, 평균 3.3회) 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제의 잔류 가능성에 의한 염려와 더불어 흐르는 물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채소류에 붙은 이물질 및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해성분에 관계없이 씻는 과정보다 데치거나 삶는 과정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금속의 경우 농약이나 유해 미생물에 비해 씻는 과정 및 데치거나 삶는 과정으로도 효과적인 제거가 힘들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약이나 유해 미생물의 경우 데치거나 삶는 과정을 통해 100%제거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중금속과 대조를 보였다.